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영화테크(265560)

자동차/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김기훈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테크(265560)

자동차 전장 및 전기차 부품 전문기업

기업정보(2020/09/14 기준)

대표자	엄준형
설립일자	2000년 08월 08일
상장일자	2017년 10월 2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정션박스, 전기차 부품 등

시세정보(2020/09/14 기준)

현재가	16,2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869억원
발행주식수	5,345,090주
52주 최고가	19,350원
52주 최저가	4,900원
외국인지분율	0%
주요주주	
엄준형 외 5인	49.1%
한국단자공업	9.3%

■ 자동차 전장 및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

동사는 2000년 8월에 전기차 부품, 자동차 전장부품, 전력전자 부품 등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주요 생산품목인 차량용 정션박스를 기반기술로, 자동차 전장 및 기타 산업분야의 전기/전자 모듈 및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제품 패키지 설계, 회로시스템 설계, 부품 설계, 그리고 PCB 설계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국내기업 최초 CAN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션박스 양산공급

동사는 차량용 정션박스 관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용 전장부품/전자모듈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기업 최초로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션박스를 국내 OEM사에 양산공급한 회사로서, PCB 타입의 정션박스부터 CAN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션박스에 이르기까지 정션박스 분야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 정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부품 사업 매출 성장 기대

정부는 2020년 7월 전기·수소차 성능향상 및 보급,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등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는 전기차 전력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중소기업청 발간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기준)의 기술력과 양산수주를 기반으로 신규 시장과 고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활성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사업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591.5	-3.6	68.8	11.6	58.0	9.8	14.9	10.5	31.1	1,218	8,754	14.6	2.0
2018	534.9	-9.6	31.4	5.9	39.0	7.3	8.3	6.5	23.9	729	9,328	15.6	1.2
2019	445.7	-16.7	-15.0	-3.4	-14.8	-3.3	-3.2	-2.6	23.5	-278	8,928	-	1.1

기업경쟁력

연구개발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

- 2019년 매출액의 4.26%를 연구개발비에 투자 (2017년 3.27%, 2018년 3.69%)
- 전기차 전력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 특허권 75건, 디자인권 23건 보유 (2020년 8월 KIPRIS 검색 기준)

기술력 기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 전기차 고전압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산업용 ESS 재사용 개발사업 추진
- 정션박스, 전기차 부품, 전장부품 등 표준화 및 모듈화 개발사업 추진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정션박스 제조기술

- 엔진룸, 승객룸 Power PCB Type 정션박스 적용
 - 다양한 전장부품 제어 가능
 -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해 내구성 보유
 - 소형 패키지 설계 가능
- CAN 통신 기능 스마트정션박스 최초 양산공급

전기차 부품

- 배터리 제어장치(BMS)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
 - Converter 개발 및 상용화
 - BDU(Battery Disconnection Unit) 개발 및 상용화
 - OBC(On Board Charger) 개발 및 상용화
 - PRA(Power Relay Assembly) 개발 및 상용화

주요제품

동사의 주요 제품군 정션박스



정션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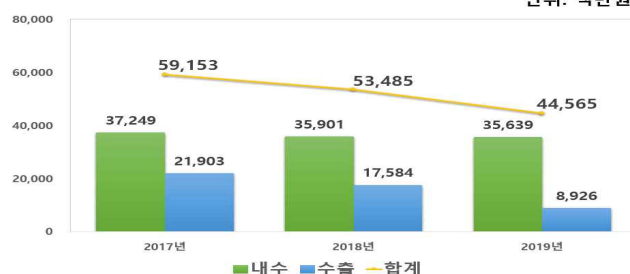
전기차 부품



매출실적

■ 2017년~2019년 매출실적(내수+수출)

단위: 백만원



시장경쟁력

국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출하금액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년	2조 1,247억 원	2.23%▲
2023년	2조 3,726억 원	

국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시장전망

- COVID-19로 인한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차후 기저효과에 의한 생산량 반등 예상
-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품단가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고객 다변화 및 글로벌 아웃소싱 능력의 확대와 친환경차의 증대로 인한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중

최근 변동사항

제품 표준화 및 모듈화 사업 추진 중

- 주요 제품의 경량화, 직접화 등 표준모듈 개발 중
- 전기차/전장 부품 통합모듈화 추진 중

전기차 부품 수주 확대

- 2019년 1월 GM과 2,490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 2019년 9월 GM과 763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I. 기업현황

자동차 전장 및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

동사는 자동차용 정션박스, 전장품, 전기차 전력전자 부품/모듈 등을 자체 개발/제조하여 국내외 자동차 OEM사 및 글로벌 부품사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제품 패키지 설계, 회로시스템 설계, 부품 설계, 그리고 PCB 설계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회사 개요

동사는 2000년 8월에 전기차 부품, 자동차 전장부품, 전력전자 부품 등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자동차용 정션박스, 전장품, 전기차 전력전자 부품/모듈 등을 자체 개발/제조하여 국내외 자동차 OEM사 및 글로벌 부품사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한국에 본사 및 생산공장, 중국에 현지 생산법인 및 상해 Sales & Engineering Center, 인도현지 법인, 미국 등지에 엔지니어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주요 생산 품목인 차량용 정션박스(Junction box)를 기반 기술로, 자동차 전장 및 기타 산업 분야의 전기/전자 모듈 및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제품 패키지 설계, 회로시스템 설계, 부품 설계, 그리고 PCB 설계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주요주주 및 임직원 현황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기준, 동사의 최대 주주는 엄준형 대표이사로, 동사의 지분 44.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7.06%로 확인된다. 동사는 등기임원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주요 주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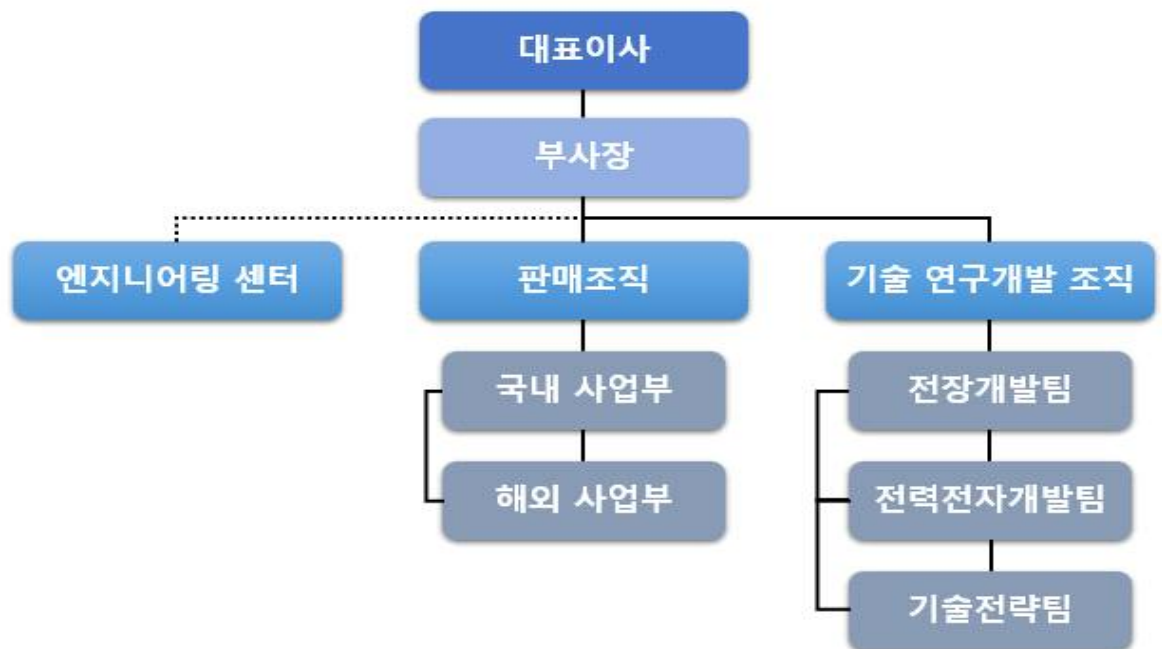
주주명	관계	소유주식 수	지분율(%)
엄준형	본인	2,836,484	44.12
안미경	특수관계인	60,000	1.12
엄윤진	특수관계인	60,000	1.12
엄현정	특수관계인	37,500	0.70
기타	타인	2,351,106	52.94
합계		5,345,090	100.00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조직구성

동사의 조직은 크게 판매조직과 기술 연구개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조직은 국내 사업부와 해외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사업부는 국내 자동차 5社(OEM) 및 대형 전장/전기차 관련 1차 부품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부는 북미, 유럽, 중국, 인도 등의 고객사들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 연구개발 조직은 대표이사 및 부사장 직속 조직으로 자동차 전장품 설계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를 담당하는 전장개발팀, 전기차 및 전력전자 부품개발을 담당하는 전력전자개발팀, 신사업 협력 및 기술개발과제, 선행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전략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조직구성도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대표이사 및 경영진 정보, 연결대상 종속회사

동사의 대표이사 엄준형은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및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주)패커드코리아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경영진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연구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권 부사장,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구본웅 상무, 구매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임태재 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경영진은 동사 제품 관련분야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30년 이상 전장 및 전력·전자 분야 전문가들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반기보고서(2020.06) 기준, 동사는 종속회사로 심양영화과기유한공사(중국), YOUNGHWATECH INDIA PRIVATE LIMITED(인도), YOUNGHWAELECTRIC INDIA PRIVATE LIMITED(인도), Young Hwa Tech USA Co.(미국)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세계 자동차시장 변환기 극복을 위해 해외법인을 통합운영하고자, 기존 중국 내 운영 중이던 종속회사 영화전자(우시)유한공사를 2019년 3월 청산하였고, 자동차시장 성장세가 높은 신흥시장인 인도 진출을 목표로 2019년 6월 인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또한, 동사는 미국 디트로이트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현지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에 Sales & Engineering Centre를 오픈하여 글로벌 종합 기술지원/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표 2] 연결대상 종속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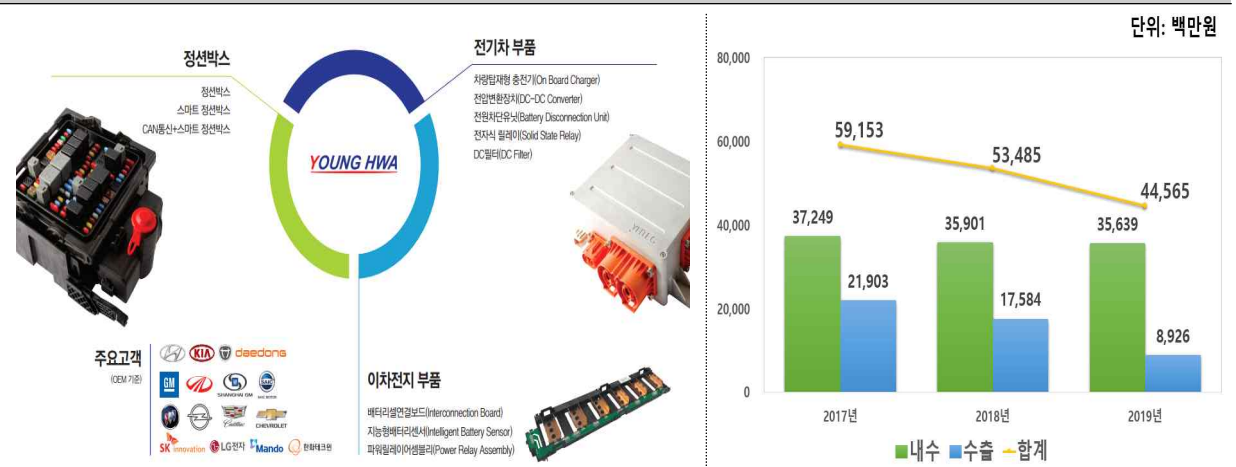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사업	상장여부	소재지
(주)심양영화과기유한공사	전기차 부품 개발·제조 및 전장품 사업	비상장	중국
(주)에코프로지이엠	전기차 부품 수출, 무역사업	비상장	인도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전기차 부품 개발·제조 및 전장품 사업	비상장	인도
상해에커환경과학유한공사	전기차 부품 개발·제조 및 전장품 사업	비상장	미국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 분야 및 고객사 현황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상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장부품인 정션박스, 전기차 부품, 이차전지 부품 등을 제조하여 고객인 자동차업체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매출은 전장품, 전기차 부품, 이차전지 부품 등 제품매출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 비중은 2019년 기준 제품매출(96.87%)이 개발매출(3.13%)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비중(79.97%)이 수출비중(20.03%)에 비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동사 주요 사업 분야(좌) 매출실적(우)



*출처: 동사 IR자료(2017, 좌),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우),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미래형 자동차 개발 활성화에 따른 국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시장 성장 전망

COVID-19로 인한 세계 및 국내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차후 기저효과에 의한 생산량 반등이 예상되며,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시장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 활성화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립산업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산업

동사의 산업이 속한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조립산업이며, 막대한 설비투자과 개발비가 소요되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생산비용이 감소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이다. 또한, 완성차 업체는 각 부품 제조업체에 신차 출시 주기인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신차 부품에 대한 생산을 발주하는데, 신차 생산기간 변동으로 추가 물량이 수주되는 경우 해당 차종 관련 매출이 유지되는 등 동사 매출은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 COVID-19로 인한 완성차 생산량 감소, 기저효과에 의한 생산량 반등 예상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2020년 1분기 세계 완성차 산업에 대해 COVID-19 사태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및 수요 위축으로 전년 대비 13.5% 급감한 7,689만 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종식 여부에 따라 수요회복 시점의 변동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세계 완성차 시장은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수요의 증가세가 정체 또는 둔화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유럽 탄소 배출 규제 등에 따라 판매량 또한 감소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 자동차 보급 대수가 낮아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완성차 산업의 경우, 2020년 6월 생산은 COVID-19로 인한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생산이 10.8% 감소하였다. 내수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 신차효과,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41.9% 증가하였으나, 수출의 경우 COVID-19 팬데믹으로 주요국 락다운(Lock-down)과 해외판매 급감에 따른 37.4%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2020.06)에 따르면, 정부의 전기·수소차 성능향상 및 보급,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따라 친환경차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작년 동기와 비교한 주요국의 5~6월 자동차 판매와 생산은 감소폭이 줄어들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차후 기저효과에 의해 생산량 반등이 전망된다.

[그림 3] 세계 및 국내 자동차 생산량 추이



*출처: 삼성KPMG 경제연구소(2020.04),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04~06), NICE디앤비 재구성

■ 미래형 자동차 개발 활성화로 국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시장 성장 전망

세계 및 국내 자동차 부품 전체 시장의 경우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COVID-19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판매와 생산 감소폭이 줄어들어 따라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TDB 시장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용 전기장치의 부품 시장은 2014년 1조 6,871억 원에서 2018년 2조 1,247억 원으로 연평균 5.93% 증가하였으며, 시장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2.23%(TAGR, 한국신용정보원 시장예측모형에 따른 예상 성장률) 증가하여, 2023년에는 2조 3,72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014년 291억 원에서 2018년 36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시장은 전반적인 완성차 시장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부품단가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고객 다변화 및 글로벌 아웃소싱 능력의 확대와 친환경차의 증대로 인한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환경, 에너지, IT 기술을 접목한 무공해, 첨단 자동차 시대로 이동 중이며,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 활성화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출하금액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TDB 시장보고서(2020.05), NICE디앤비 재구성

■ 국내 자동차 전기장치 부품 Value Chain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시장은 동사를 포함한 에스엘, 대동, 광진원텍, 아트라스비엑스, 경신전선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장치 부품 시장의 Value Chain은 '소재산업 →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 → 완성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방산업인 소재산업의 주요 참여 업체는 티엠테크, 태성전장, 신광정공, 대호피앤씨 등이 있으며, 전방산업인 완성차 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이 있다.

[그림 5] 자동차 전기장치 부품 전·후방 산업

(소재산업)	(자동차 전기장치 부품)	(완성차 산업)
	<p>배터리, 등화장치, 계기장치, 경음기, 윈드시일드 와이퍼, 모터, 전기배선, 스위치, 릴레이, 케이블 등</p>	
<p>티엠테크, 태성전장, 신광정공, 대호피앤씨 등</p>	<p>에스엘, 대동, 광진원텍, 아트라스비엑스, 경신전선, 영화테크 등</p>	<p>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p>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TDB 시장보고서(2020.05),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정선박스 제조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제어장치(BMS)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

PCB 타입의 정선박스부터 CAN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선박스에 이르기까지 정선박스 분야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전력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로, 배터리 제어장치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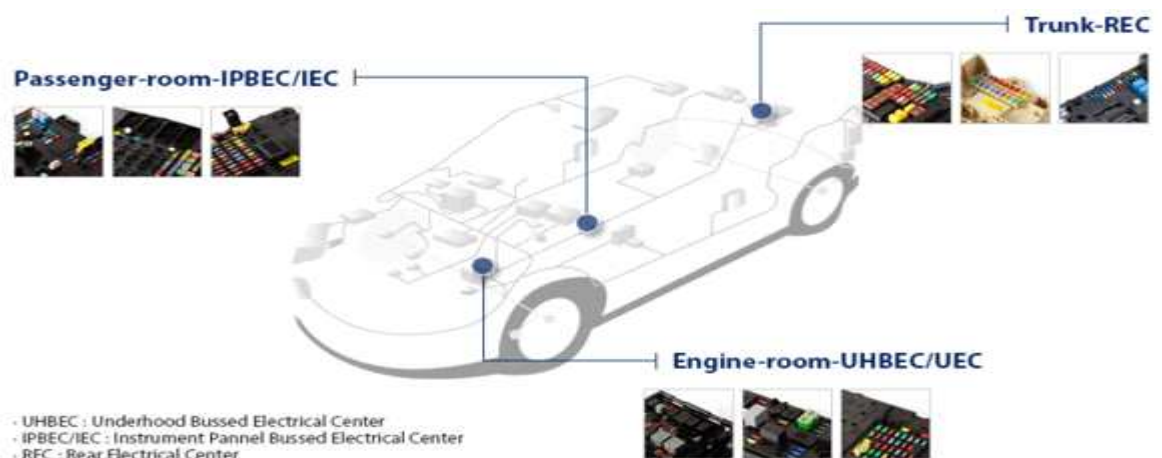
■ 국내기업 최초로 CAN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선박스 양산공급

동사는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요 제품은 정선박스(Junction Box), 전기차 부품, 이차전지 부품 등으로 구분된다.

정선박스는 자동차 전체 부품 중 약 40%~50% 가량을 차지하는 전장부품에 전원 및 신호를 공급/분배하고, 회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장착 위치에 따라 엔진룸(Engin room) 정선박스, 승객룸(Passenger room) 정선박스, 트렁크(Trunk) 정선박스 세가지로 구분되며, 형태에 따라 컨벤셔널(Conventional) Type, PCB Type, SJB(Smart Junction Block) Typ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사는 국내기업 최초로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선박스를 국내 OEM사에 양산공급한 회사로서, PCB 타입의 정선박스부터 CAN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정선박스에 이르기까지 정선박스 분야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엔진룸, 승객룸 정선박스에 PCB Type과 SJB Type의 제품을 트렁크 정선박스에 컨벤셔널 Type, PCB Type, SJB Type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의 엔진룸, 승객룸 정선박스의 경우 Power PCB Type를 적용하여 컨벤셔널 Type보다 다양한 전장부품 제어가 가능하고, 전류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해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 패키지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최소의 I/O 커넥터(Connector)를 적용하여 조립성을 향상시켰으며, 유사 차종에 적용가능한 유연한 설계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림 6] 동사의 정선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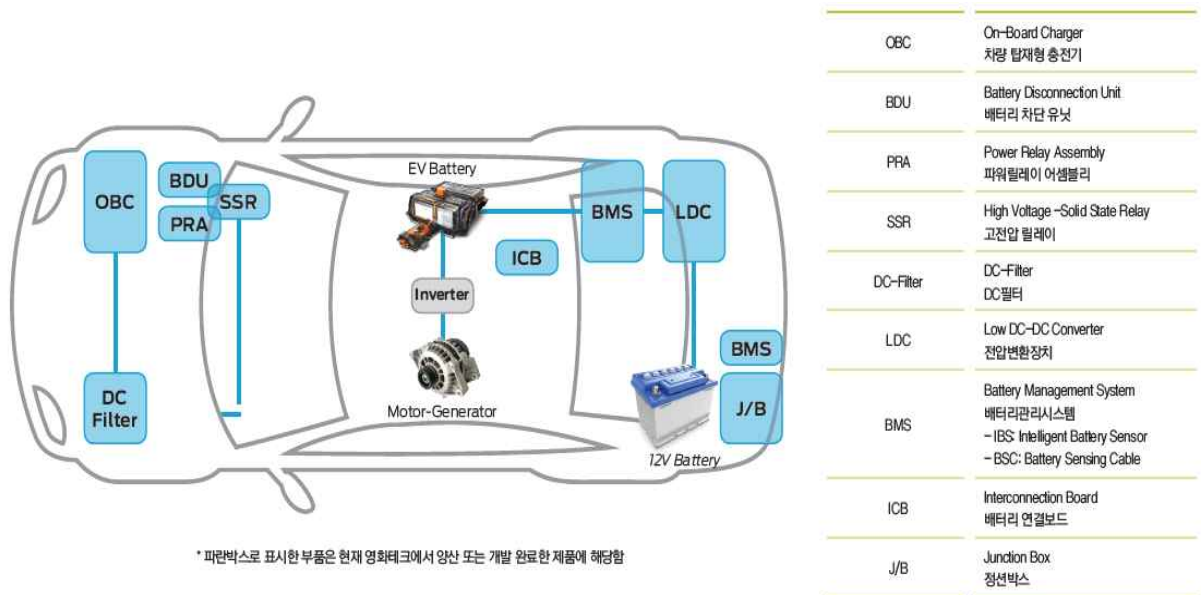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전기차 전력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 배터리 제어장치 핵심기술 보유

동사는 전기차 부품으로 Converter, OBC(On-Board Charger), BDU(Battery Disconnection Unit), SSR(Solid State Relay), HPCC(High Power Charger Controller), IFB(Interface Board)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Converter는 전기차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Alternator를 대체하는 부품으로서, 고전압 배터리(200V~400V)로부터 다양한 전자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저전압 배터리(14V)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변환 장치이다. OBC는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가정에서 충전 시 220V의 전원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을 한다. BBU는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고전압/고전류를 전기차의 주요 장치로 분배하고, 긴급상황에서는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류를 차단하며, 상시 상용전력을 감시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SR은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히터 구동 및 제어장치로서, 동사는 기존의 기계식 Relay 방식 대비 발전된 전자식 무접점 Relay 방식을 채택하여 자유로운 동작 및 제어가 가능하게 하였다. HPCC는 Plug In 방식의 전기차 급속 충전 시 고전압/고전류를 감지하여 전원 및 전력을 제어하고 충전 시 급속 충전기와 차량 MCU(Micro Controller Unit) 사이의 통신을 통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FB는 IFB와 연결된 모듈의 모니터링(System on Chip 및 Vehicle Control Unit의 상태 확인) 기능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그림 7] 동사의 전기차 부품



* 파란박스로 표시한 부품은 현재 영화테크에서 양산 또는 개발 완료한 제품에 해당함

*출처: 동사 IR자료(2017)

동사는 전기차 전력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출처: 중소기업청 발간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기업으로, 배터리 제어장치(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관련 소자부품부터 전력변환 관련 핵심부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Converter

BDU(Battery Disconnection Unit), OBC(On Board Charger), PRA(Power Relay Assembly), DC-Filter, HV-SSR(Solid State Relay) 등 전기차/이차전지 전력변환 관련 핵심부품들을 자체 개발하여 국내외 유수의 자동차 및 전자 OEM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모터 컨트롤러 등 각종 전력전자 부품/모듈 등을 개발 및 공급 중에 있다. 또한, 전기차 핵심 전력전자 부품인 PDU(Power Distribution Unit)/OBC(On Board Charger)/Converter에 대해서는 이미 OEM사 공급이 확정되어 대규모 양산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중국 OEM사의 전기차 프로그램에 참여, 개발하여 2020년 상반기에 양산 중에 있다.

■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ESS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 중

동사는 이차전지 관련 부품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Battery Sensing Cable과 Sensing PCB를 생산하고 있다. Battery Sensing Cable은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 등을 감지하여 현재 배터리의 SOC(Stat of Charge), SOH(State of Health), SOF(State of Function) 등의 정보를 계산하여 차량의 주 제어기기인 MCU(Micro Controller Unit)로 전달하여 에너지 효율 및 배터리의 수명을 높이는 장치이며, Sensing PCB는 배터리 셀 간의 직렬연결을 통해 배터리 효율과 수명을 높여주는 장치이다.

[그림 8] 동사의 이차전지 부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현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백만 개 이상의 이차전지 고전압 리튬-이온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의 환경친화적, 안전적 회수 및 활용이 필요한 실정으로, 동사는 전기차의 고전압 폐배터리를 산업용 ESS(Energy Saving Storage)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SS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잉여전기를 저장한 후, 저장된 전력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광/풍력/조력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전력의 수요/공급의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다.

동사는 이차전지 전력변환 핵심부품들에 대해 양산개발을 하고 있으며,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반 기술을 확보한 선도기업으로써, ESS 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2018. 11. 5. 개최된 "전기차 배터리 회수 재활용 체계 설명회"에서 전기차 폐차 시 차량은 폐차를 시키지만 폐배터리(팩)은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고시 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동사는 2018년 4월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ESS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어, 선도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계획/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중

동사는 2002년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아래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용 정션박스 관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용 전장부품/전자모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실적으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과 공동 개발한 “친환경 전기차 전원관리시스템 및 센싱모듈 개발” 과 쌍용자동차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 “전기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부하 적응형 배터리 및 통합전력전자 모듈 개발”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숭실대학교 등과 함께 “HEV(하이브리드차), EV(전기차) 폐배터리 분석 검증 및 재구성을 위한 분류 핵심 기준 산출 기술개발” 을 수행 중에 있다.

한편, 동사는 2017년~2019년 3년 평균 3.74%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KIPRIS 조회 기준(2020.08) 총 75건의 특허권과 23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표 3] 동사 연구역량 지표

연구개발투자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일부)	
				과제명	년도
매출액(백만 원)	59,153	53,485	44,565	✓ 전기동력 파워트레인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2019
연구개발비(백만 원)	1,661	1,645	1,840	✓ 전기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 부하 적응형 배터리 및 통합전력 전자모듈 개발	2017
연구개발투자비율(%)	3.27	3.69	4.26	✓ 친환경 전기차 전원관리시스템 및 센싱모듈 개발	2016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등록)		디자인		
실적(건 수)	75		23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KIPRIS 홈페이지, NT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기대

[그림 9] SWOT 분석



IV. 재무분석

2019년 전방산업 경기 침체로 매출감소세 지속, 적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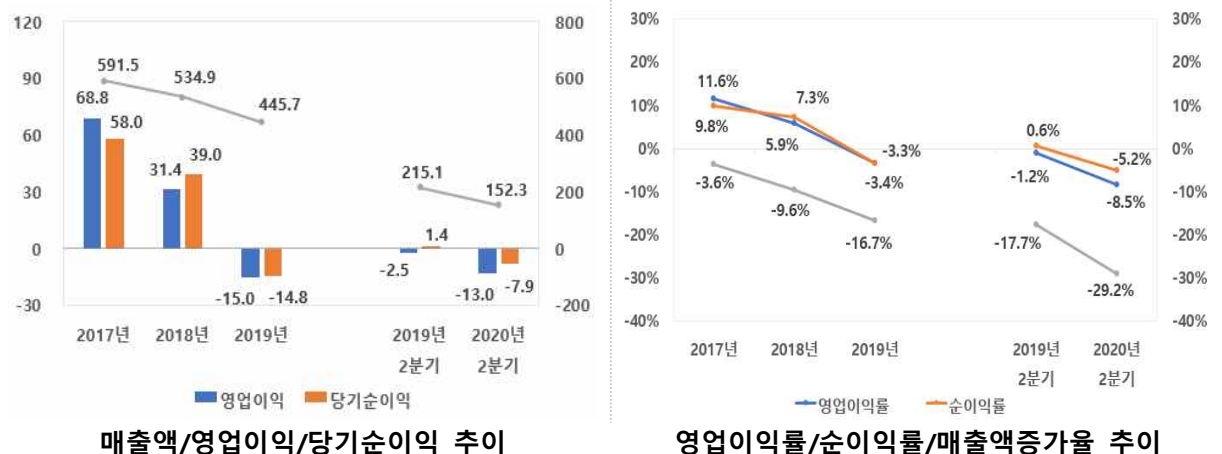
2019년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 침체로 매출감소세를 지속하며 적자전환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도 실적 감소와 적자기조가 지속되었다.

■ 제품 판매가 매출 비중에서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

동사는 자동차용 부품 업체로 전장부품인 정션박스와 전기차 부품, 이차전지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크게 제품매출과 부품 개발매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매출 비중은 제품매출 96.87%, 개발매출 3.13%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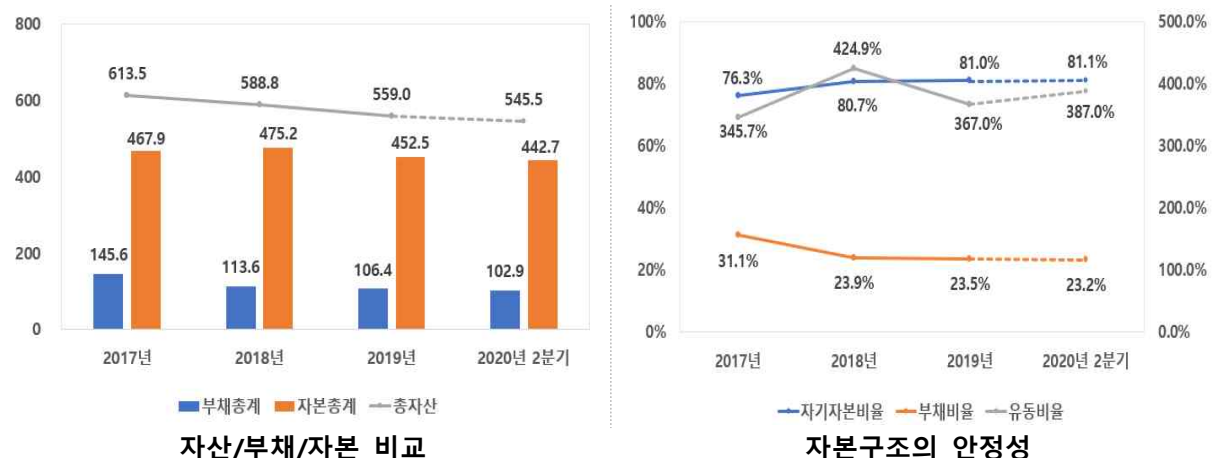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그림 11]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 2019년 전방산업 경기 침체로 매출감소세 지속 및 적자전환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업황 부진 및 완성차 생산량 감소 등으로 동사는 2018년 535억 원(-9.6% YoY), 2019년 446억 원(-16.7% YoY)의 매출액을 각각 기록하며 최근 2개년간 매출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동사의 수출 비중은 2017년 37.0%에서 2018년 32.9%, 2019년 20.0%로 최근 2개년간 축소 추세를 보였고, 금액상으로도 2017년 219억 원에서 2018년 176억 원(-19.7% YoY), 2019년 89억 원(-49.2% YoY)을 각각 기록하며 수출액의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2019년에는 특히 중국향 매출이 전년 173억 원 대비 35.7% 감소한 111억 원을 기록하는 데에 그쳤고, 이는 동사의 매출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9년 동사는 원가율 상승과 신사업 진행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외수지 흑자폭 축소로 인해 영업손실을 상쇄하지 못하고 순손실 15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였다.

■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 저하와 적자기조 지속

2020년 2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COVID-19로 인한 자동차 생산 및 소비 저하 등으로 자동차 시장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29.2% 감소한 15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88%대의 높은 원가율의 지속과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손실 13억 원과 순손실 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적자 기조를 지속하였다.

■ 2019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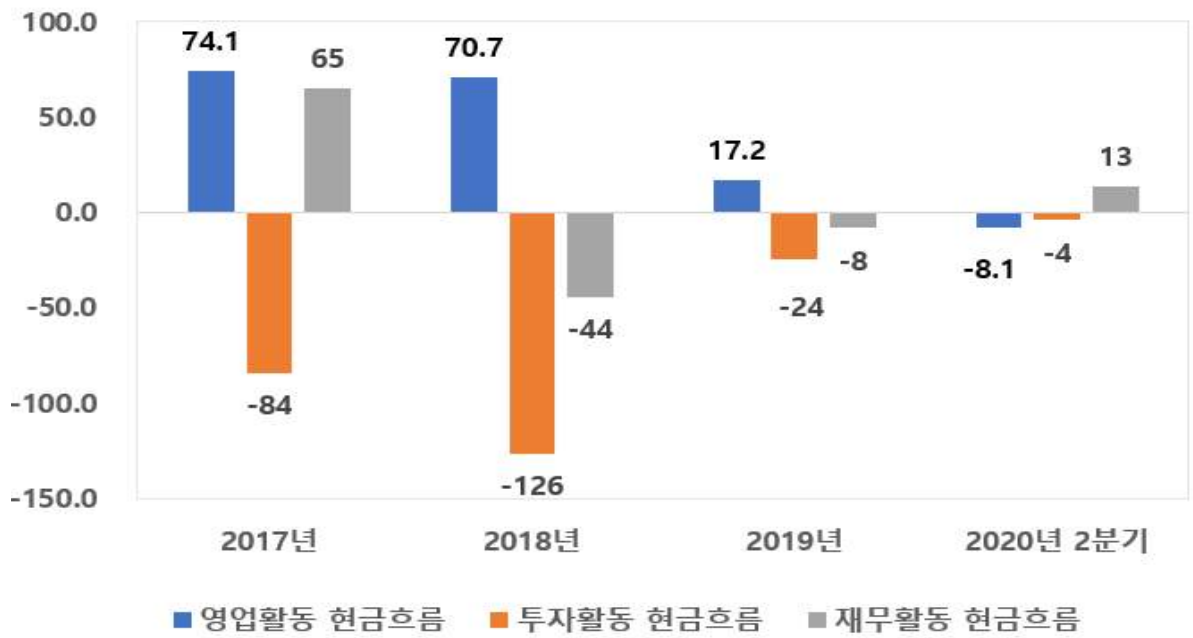
동사는 부품 제조업체로 아산과 중국 심양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설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매년 감가상각비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9년에도 이어진 가운데, 21억 원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으로 인해 순손실 시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2개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2019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76.1% 감소한 수준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이 큰 폭으로 저하되었다.

또한, 동사는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장기차입금의 상환, 자기주식의 취득, 배당금 지급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였으며, 추가적인 현금유출은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동사의 현금성 자산은 기초 34억 원에서 기말 19억 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림 12]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정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부품 관련 매출 성장 기대

동사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매출실적이 감소하였다. 다만, 현재 전기차 부품 수주 확대에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부품 관련 매출 성장으로 향후 전기차 부품 관련 매출 비중의 증가가 기대된다.

■ 2020년 상반기 매출감소세와 적자기조 지속

2019년 동사는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매출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적자전환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전방산업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매출실적 감소와 적자기조를 지속하였다. 하반기에도 COVID-19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요 부품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표적인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에서 2019년 스위스 수소 에너지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수소전기트럭의 수출을 개시하는 등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9년 8월 현대자동차와 수소상용차 LDC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전기차향 매출 비중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정선박스, 전기차 부품, 전장부품 등 표준화 및 모듈화 사업 추진 중

동사는 친환경자동차 및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추어 정선박스에도 경량화, 직접화, 전자화로 지능형 표준모듈 개발과 더불어 외부 제어장치와 통합 등 지능화, 최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차종에 적용이 용이한 경량화 제품 개발 및 양산을 통해 기존 및 신규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인도/중국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전력/전원/통신 관련 각종 전기차/전장부품들의 통합 모듈화를 추진 중이며, 중·대형차 부품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 진행을 계획 중에 있다.

■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신규 글로벌 공급망 확보 중

동사는 국내 자동차 5사는 물론 해외 글로벌 OEM사에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등 안정적이고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기존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 및 중국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 최근 7%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제품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를 통해 외부 시장 변수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갈 계획이다.

동사는 ISO/TS 16949 인증을 보유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ISO 14001 인증을 통한 환경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부품 설계, 구현, 통합, 검증, 인증, 생산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기능한 정성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262에 맞추어 제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핵심 전력변환 및 전력전자 분야에 있어서 품질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제약요건을 극복함으로써, 신규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차 부품 수주 확대

동사는 2019년 1월 GM(General Motors)과 IEC(실내 정선박스) 관련 2,490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9월에는 소형 SUV 차량의 UEC(엔진룸 정선박스), BDU(배터리 디스트리뷰션 유닛) 관련 763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는 부진한 국내 수요를 상쇄하기 위해 신규 해외 법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심양법인의 전기차 정선박스 양산을 통해 전기차 부품 수주를 확대중에 있다.

[표 4] 수주실적

수주처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제품
쌍용자동차	329억	2018.04.13.~2024.12.31	PDU/LDC/OBC 통합모듈 공급	전기차 부품
General Motors	2,490억	2019.01.29.~2028.08.31	CCC IEC (Interior Electrical Centers) 공급	정선박스
쌍용자동차	139억	2019.08.30.~2025.12.31	엔진룸 정선박스(UEC)공급	정선박스
현대자동차	55억	2019.08.30.~2024.12.31	수소상용차 LDC(Low Voltage DC-DC Converter) 공급	전기차 부품
General Motors	763억	2019.09.25.~2029.08.31	GM UEC(엔진룸 정선박스), BDU(배터리 디스트리뷰션 유닛) 공급	정선박스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정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부품 사업 매출 성장 기대

정부는 2020년 7월 전기·수소차 성능향상 및 보급,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등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25년까지 총 23종 이상의 전기·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는 전기차 전력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중소기업청 발간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기준)의 기술력과 양산수주를 기반으로 신규 시장과 고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활성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사업의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신한금융투자	중립	10,800원(하향)	2019. 0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박스 제조사에서 전기차 부품사로 발돋움 ■ 전기차 부품 수주확대로 체질개선 진행 중 		